

2020년 5월 해외교육정보 동향자료

- 재외 한국교육원장 보고 자료 -

2020. 5.

교 육 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차 례

<영국>

(영국) 잘사는 아이들 '빈곤한 학생보다 학습량 많아'..... 1

<베트남>

(호치민시) 2020학년도 초,중,고 신입생 모집 계획 3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타주 교육국의 코로나 대응현황 6

<일본>

(나가노) 히메지시 교육위원회 여름방학 단축 9

(나가노) 도야마 대학생들의 생활고, 지원 요청 11

<독일>

(독일) 코로나-19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교원의 평가..... 13

교육원명	영국 한국교육원
제 목	Covid-19 : 잘사는 아이들 '빈곤한 학생보다 학습량 많아'
원출처	BBC News (2020. 5. 18.)

□ 주요 내용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비드-19로 인한 전국 외출금지령으로 인한 격리 상태에서 부유층 가정의 어린이들이 저소득층에 비해 일일 학습량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잉글랜드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고소득층 아이들이 저소득층의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량이 약 7일 더 많다.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하루에 6시간을 교육적인 활동에 할애하나, 저소득층 아이들은 4시간 반에 그쳤다. 정부는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재정연구소 IF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주관으로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연령에서 그보다 높은 연령대보다 교육 활동 시간의 격차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공립 중등학생의 3명 중 2명(64%)이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은 47%만이 가정의 도움을 받고 있다.
- IFS의 새로운 연구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가정 학습에 대한 교육 자원과 부모의 지원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또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장소를 확보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 고소득층 가정 중 55%,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 중 29%의 학부모만이 자녀를 초등학교에 다시 보내겠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영국의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학생들이 다시 등교하는 것이 학교 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폴 화이트먼 전국 교장 협회장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정부가 다시 등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적 이유를 먼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BBC 라디오 4 방송에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안전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아이들을 다시 교실로 데려오려는 교장들의 열정은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리버 다우든 문화부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안전이 정부의 가장 최우선 사항이며 장관들은 이러한 교사들의 우려에 계속해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구가들은 학교 폐쇄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그들은 위기가 학습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IFS의 연구 경제학자인 루시 크래프트먼은 “이러한 차이점들은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서 기존의 차이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교육부의 한 대변인은 “우리는 아이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과학적인 조언에 따라 이르면 6월 1일부터 일부 학년의 단계적 복귀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교육원명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제 목	2020년 1학년(초등), 6학년(중등), 10학년(고등) 신입생 모집 계획

□ 주요 내용

○ 1학년

- 지난 3월 13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신입생 모집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모집은 7월 1일에 시작하여 7월 31일까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 모든 1학년 학생은 오전과 오후에 의무적으로 수업을 참여해야 하며, 6살 미만 또는 및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 모집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반당 학생 수는 35명 이하로 결정되었다.

○ 6학년

- 중학교 6학년 신입생 모집은 7월 15일에 시작하여 8월 5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6학년 학생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만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각 반에 45명 이하의 학생 수가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총 5년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는 일반 중학교와 달리 쩌 다이 응이아 (Trần Đại Nghĩa) 영재고등학교*는 호치민시 교육청의 허락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가 따로 실시하는 영어로 된 평가에 응시, 평가 결과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유일한 국립 학교이다.

* 쩌 다이 응이아 영재고등학교는 다른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6학년 과정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운영함.)

- 따라서 7월 25일 쩌 다이 응이아 (Trần Đại Nghĩa) 영재고등학교에서 90분 동안 수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 자격은 초등 교육 과정 5년을 수료하였고 수학-문학 기말시험 결과가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쩌 다이 응이아 (Trần Đại Nghĩa) 영재고등학교에 불합격 할 경우 거주 지역에 있는 다른 일반 중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다.

- 호치민시 교육청은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교육 계획

※ 영어 교육은 여러 지역에 있는 중학교와 쩌 다이 응이아 (Trần Đại Nghĩa) 영재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제1외국어 일본어 수업은 레위돈 (Lê Quý Đôn) 중학교(3군) 과 Võ Trường Toản 중학교(1군)에서 진행할 계획임

※ 쩌 다이 응이아 (Trần Đại Nghĩa) 영재고등학교, 레위돈 (Lê Quý Đôn) 중학교 및 보쯔엉또안 (Võ Trường Toản) 중학교는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화르 (Hoa Lư) 중학교 (9군) 및 빈터 (Bình Thợ) 중학교 (투득 군)은 제2외국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기로 함

- 또한 응웬티딘 (Nguyễn Thị Định) 예체능전문고등학교는 축구, 농구, 배구, 육상, 무술, 배드민턴 및 수영 부분에 중학교 6학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입학 신청 자격은 초등 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방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 수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10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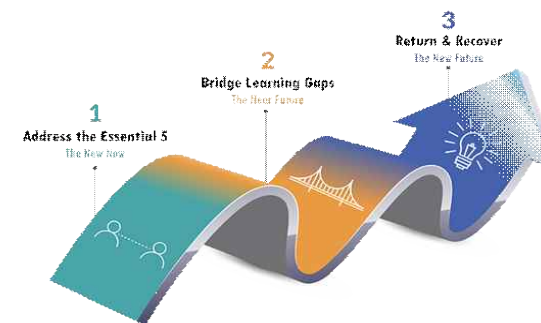
- 중등졸업시험 전형으로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16일, 17일 2일간, 문학, 수학 및 영어 등 3가지의 과목을 서답형으로 중등졸업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일반 공립 고등학교에 입학 희망자는 3교(레홍풍 (Lê Hồng Phong) 영재고등학교, 쩌 다이 응이아 (Trần Đại Nghĩa) 영재고등학교 그리고 호치민시 국립대학교 부설 영재고등학교)를 제외한 3개의 진학희망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험 전형에 합격한 이후, 신청한 학교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점수 계산법 : 획득한 문학과 수학 점수에 2를 곱하고 영어 점수를 더 하면 최종 점수가 나온다. 우대 점수*는 최종 점수에 최대한으로 3점까지 추가할 수 있다.

- * 우대 사항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의 후손, 소수민족인 자, 소수민족인 부모를 가지는 자 등을 포함.
- * 이외에 호치민시 교육청은 장애인,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전국-국제대회에 상을 받은 자, 중등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과학-기술대회에 상을 받은 자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등졸업시험 응시 없이 영재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생들이 희망한 고등학교에 합격시킴
- 영재고등학교 입학 희망자의 경우에는 중등졸업시험에 나오는 3개의 일반 과목 외에 전문과목 관련 추가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한다.
- 호치민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 ※ 중국어 교육 : 흥브엉 (Hùng Vương) 고등학교, 쩌카이응웬 (Trần Khai Nguyên) 고등학교, 쩌광카이 (Trần Quang Khải) 고등학교, 남기 커이 응이아 (Nam Kỳ Khởi Nghĩa) 고등학교
- ※ 일본어 제1외국어 교육 : 레귀돈 (Lê Quý Đôn) 고등학교, 마리 퀴리 (Marie Curie) 고등학교, 쩌브엉 (Trưng Vương) 고등학교
- ※ 독일어 제1외국어, 제2외국어 교육 : 쩌 다이 응이아 (Trần Đại Nghĩa) 영재 고등학교, 응웬트엉히엔 (Nguyễn Thượng Hiền) 고등학교, 응웬티민카이 (Nguyễn Thị Minh Khai) 고등학교, 응웬퀴엔 (Nguyễn Khuyến) 고등학교
- ※ 한국어 제2외국어 교육 : 투득 고등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임

교육원명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
제 목	미국유타주 교육국의 코로나대응현황
원출처	https://schools.utah.gov/coronavirus

□ 주요배경

- 4월 14일, 유타주는 초중고의 오프라인수업중단(soft closure)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봄학기 마지막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코로나가 사회경제적인 각각의 부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교육적으로는 성공을 이룰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유타주 교육국은 미래회복 모델을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배움의 연결, 3단계- 회복 및 복구로 보고 있음.



□ 주요 내용

- Soft Closure 뜻: 학교 내 수업이 중단되지만 원격수업은 제공됨. 급식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음식이 제공됨. 학생은 온라인으로 교사와 교직원들과 연결됨. 총 교직원의 수는 한 건물 내에서도 움직임이 제한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 지역 및 주단위의 건강보건센터도 확진자 발생시 무조건 닫는 것이 기준.

- 교직원들은 학교 및 사무실에 근무하는지 여부: 10 명이상 모임금지 및 취소 행정명령에 따라 최소 인원이 최대한의 거리를 두로 근무. 교육자들은 원격강의 준비를 위하여 담당자와 교육감들과 원활히 소통할 것임.
-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전체 빌딩 폐쇄로 이어지는지 여부: 보건당국과 학교대표간의 상의하에 결정될 것
- 수업일수날짜가 어떻게 대체되는지, 6 월 졸업이 유효한지 여부: 원격 수업은 다른방식의 배움일뿐이며 6 월 졸업에 지장이 없음. 학생, 가족들은 모두 졸업을 위한 성공적인 원격강의의 진행을 위해 노력할것임. 학점 또한 최대한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겨질것임.
- 파트타임 및 비정규직 직원들도 급여를 받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차터스쿨과 협의중임. 이 기간을 교직원들의 전문성향상의 기회로 삼는 것을 추천하며 모든 선택이 고갈되면 유타노동청의 추가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
- 특수교육학생들은 기존의 개별화교육계획이 어떻게 되는건지: 온라인, 화상, 전화 및 커리큘럼 중심 교육 등 여러가지 교육방법등으로 다양하게 특수교육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할 전망. 이 방법에 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보완 및 보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락다운 이후 바로 무료로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중.
- 인터넷접속이 제한적인 가족들은 어떻게 원격강의를 대처할지: 원격 강의가 무조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님.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셀프스터디 및 프로젝트 베이스 등)
- 학부모로서 어떻게 학년에 맞추어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웹사이트(<https://www.uen.org/core>) 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학부모, 교육자,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각 학년마다 배워야 하는 기본틀을 제공하여 레벨을 확인할 수 있음.
- 어떻게 학생들과 직원들의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받을수 있을지: 이미 몇몇 교육청에서 원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 학협회의 자문을 받은 정보로 자가진단 및 대화 가이드를 제공.

□ 향후전망

- 5월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가을학기를 모두 온라인으로 발표한바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 초중고등학교의 8월 개학도 불투명한 상황임.
- 원격강의의 다양한 시도와 플랫폼이 개발되어 수업에 이용되어질 전망

교육원명	나가노한국교육원
제 목	히메지시 교육위원회는 여름방학은 초등학교 16일, 중학교는 9일로 대폭 단축해
원출처	神戸新聞NEXT (2020.05.16)

□ 배경

- 효고현 히메지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시립 초중학교의 여름 방학을 당초 예정인 42일에서 초등학교 16일, 중학교 9일로 단축한다고 시의회 문교·육아위원회에 보고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임시휴교에 따라 보충수업 등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의 지침에 따라서 이달 20일부터 등교 가능일을 정하는 방침도 가결되었다.

□ 주요 내용

- 시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7월 21일~8월 31일로 예정하고 있던 여름 방학을 초등학교는 8월 1~16일, 중학교 그리고 특별지원학교는 8월 8~16일, 유치원은 8월 1~31일로 하였다. 시립 고등학교는 현립 학교 제4학군에 맞추기로 하였다.
- 중학교가 소학교보다 짧은 것은 진로 지도의 필요성 등에 의해서라고 한다. 보충 수업과 보육은 평일 오전 중에 실시하기로 하였고 당초 예정된 여름 방학 기간 중에 초등학교는 18일간, 중학교와 특지는 23일 그리고 유치원은 7일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여름철 식중독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급식은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 겨울 방학에 대해서도 기존 12월 25일~1월 6일로부터 2일간 단축한 12월 26일~1월 5일이라고 한다. 수업 시간을 확보하면서 학생들 간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운동회나 체육대회, 문화발표회 등의 행사의 중지도 각 학교에 요청하고 있다.

- 또한 현 정책 발표를 수용해 초중학교는 이달 30일부터 주 1~2일 정도의 등교 가능일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거주 지역 및 출석 번호 등으로 클래스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교실 내에서의 아동과 학생을 20명 이하로 억제하기로 하였다.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 경우에는 10일간의 분산방식의 등교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이날 대책본부의 회의도 열려, 히메지를 포함한 관광문화시설 및 스포츠 대관 시설에 대해서 비상사태 선언의 기한인 5월 31일까지 휴관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육원 등의 「특별 보육」도 31일까지 연장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휴업요청이 완화되기 때문에 보육의 대상이 되는 보호자의 직종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식품 매장을 제외하고 임시휴업이 계속되는 히메지역의 산요백화점이 머지않아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계기로 건물 내의 시청출장소를 5월 19일 여는 것으로 하였다.

교육원명	나가노한국교육원
제 목	생활고와 부모의 소득 감소,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된 도야마 대학생들이 지원을 요청하며 서명운동을 실시
원출처	北日本新聞 (2020.05.18)

□ 배경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현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거나 가정의 수입이 감소하여 생활고에 빠졌다. 도야마대에서는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서명 활동을 통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지역에서 경제적 지원 및 학비 감액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서명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 주요 내용

- 「가정의 수입이 줄고, 아르바이트도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학비를 지불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도야마대 학부 1학년 하네다 씨(19)는 고향인 아오모리현 하치노시를 떠나 지난 4월 초부터 도야마시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부모로부터의 송금된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지만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해 아버지가 경영하는 음식점이 4월 초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한편 도야마대의 강의는 4월 하순으로 연기되어 현재 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수업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컴퓨터 및 인터넷 회선 비용도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 지금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면접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낯선 땅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수 및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의 기회도 없어 「아직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불안한 가운데 혼자 생활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 도야마대학에서는 빈곤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업료 감면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5만엔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하네다씨는 「신종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된

것은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한 생각에 공감한 학생 다섯명과 함께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도록 도야마대학에 요구하고 5월 1일부터 온라인 서명사이트에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 이 모임이 회원인 4학년 여학생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모로부터의 송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인 약 5만엔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곤란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학생도 있다는 것을 대학당국에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 온라인 서명은 25일까지 100명의 서명을 모아 도야마대학의 사이트 학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네다 씨는 「국가나 대학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활동이 중요하며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학생들의 경제 상황 악화를 접하고 나서 도야마대 등 전국의 대학에서는 경제적 지원에 나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 도야마대도 지난 4월 하순에 지원책을 발표했다. 수업료 감면을 신청하는 학생 및 유학생 약 1,300명에게 5만엔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5월 12일 입금 계좌를 알고 있는 약 1,230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였다.
- 도야마대에는 약 9,300명의 학생과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새롭게 수업료 감면이나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다는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담당자는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나오고 있어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 밖에도 와세다대는 총액 5억엔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히로시마대는 빈곤한 학생에게 매월 3만엔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학생 단체인 「고등교육 무상화 프로젝트 FREE」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감소 등으로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 학생은 응답자 5명 중의 1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를 접하고 나서 정부에서는 빈곤한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엔, 더욱 빈곤한 학생에게 20만엔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원명	독일한국교육원
제 목	코로나-19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교원의 평가(설문결과)
원 출처	- https://bildungsklick.de/schule/detail/kinder-und-jugendliche-finden-lernen-zu-hause-positiv - https://bildungsklick.de/schule/detail/fernunterricht-in-der-coronakrise - https://bildungsklick.de/schule/detail/vbe-umfrage-zur-lage-an-den-schulen

□ 배경

- 3월 20일부터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학교 상황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설문조사 및 후속연구 결과를 통하여 코로나-19 시기의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 교사, 교장들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통신사 텔레콤 재단(Deutsche Telekom Stiftung)이 원격수업이 1개월 정도 진행된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10~16세 청소년 및 학부모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 통신사 보다폰 재단(Vodafone Stiftung) 위탁으로 알렌스바흐 여론조사연구소(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가 4월 2일부터 14일까지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사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파더본 대학(Universität Paderborn) 교육학부 교수들이 진행한 코로나 시기 이후의 학교시스템 연구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사협회가 코로나-19 시작 전 2월에 시행한 교장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를 4월에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 디지털 수업 환경에 필요한 재정 긴급 지원

가. 학생이 보는 코로나 시기의 수업

- 학생들은 원격수업 관련하여 교사나 친구들과의 소통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쉽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친구들과의 접촉이 없어진 것이며(70%), 그 다음은 함께 공부하는 것, 교사들의 피드백, 개별지도 등이 불가능한 것 순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은 하루 평균 3.5시간 공부하고, 하루의 정해진 생활리듬에 따라서 생활하며, 가정에서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학습기기 면에서 대부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학습 환경에 대해서도 대부분 자신의 방에서 조용한 가운데 학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습방법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메일로 과제를 보내면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한 후 메일로 회신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온라인수업이나 학습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 활용, 디지털 그룹 활동 등 혁신적인 방법에 의한 지식 전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과목은 MINT¹⁾ 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학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은 독일어, 수학, 영어였으며, MINT 과목은 학부모, 교사, 친구들로부터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고 했다. 물리, IT, 외국어, 사회/경제 과목의 과제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실험은 디지털로 가능할 수 있지만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 응답 학생의 52%만이 교사들로부터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가정학습을 더 잘하고 있었다. 가정학습에 대한 평가를 학교급별로 보면 김나지움과 하우프트슐레 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였으며, 레알슐레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사가 보는 코로나 시기의 학생 지도

- 응답 교사 중 87%는 코로나-19 시기에 학생들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35%는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과 연락하고 있으며, 52%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한 반면에,

1) 수학/정보/자연과학/기술(Mathematik/Information/Naturwissenschaft/Technologie) 과목의 두문자 합성어로서, 전통적 기술강국 독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자연/이공분야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말함

9%의 교사는 아주 적은 학생들과만 연락이 되며, 심지어 3%의 교사는 학생 중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 응답한 교사의 51%는 수업이 가정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학부모들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사 중 62%는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 학교 측이나 교육청, 동료 교사들을 통한 도움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교사 중 32%는 자신의 학교가 원격수업을 위한 전반적인 컨셉트를 만들고 있으며, 41%는 교사간의 협력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반면에, 24%는 교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29%는 학교 측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원했으며, 38%는 교육청이나 주 정부 교육부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코로나-19 이전에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 학교들은 코로나 시기의 학습에서도 디지털 학습 자료를 더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42%), 그렇지 못한 학교는 25%만이 디지털 학습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학부모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응답한 교사 중 33%만이 자신의 학교가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에 잘 준비되어 있으며 그 이유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디지털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교사의 66%는 코로나 같은 위기에 대한 학교의 전체적인 대응방안이 없었다고 했다.
- 이 연구는 독일 전역에서 장래에 생길 전염병의 경우에도 대비하여 교육과 재정 면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 전에 디지털 수업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학교는 학생들과 효율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모든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독일 전역에 유용한 수업 방안이 필요하다. 개별 학교가 개학하기 시작하였지만 디지털 수업과 관련된 교사 연수, 디지털 학습 플랫폼 도입, 취약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등에 대해서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다. 교장이 보는 코로나 시기의 교육활동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장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많아진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직무에 대한 불만이 2월 조사 시 9%에서 4월 조사 시 20%로 증가했다고 했다. 교장들은 코로나 시기 동안 긴급 돌봄, 원격수업 방안 수립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독일 교육계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교사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시기에 교사들의 보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교장 중 40%는 코로나 시기의 가장 큰 문제로 학교의 부족한 디지털 환경(와이파이 환경)과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부족이라고 보았다.
- 학교급별로 볼 때 상급학교의 인터넷 환경은 초등학교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교장의 41%가 인터넷 환경이 괜찮다고 응답한 반면에 초등 이후 상급학교 교장의 5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초등학교 교장의 57%는 교육적 측면에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원격수업이 한계가 있으며 전적으로 학부모의 도움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